



##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아르타파노스와 요세푸스 비교 연구

김동혁(연세대)

### 1. 서론

파라오의 왕궁 시절 모세는 어땠을까? 모세는 어떻게 구스 여자와 혼인하게 되었을까(민 12:1)?<sup>1</sup> 이런 질문들에 성서학도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성서학도는 성경이 말해 주는 것과 씨름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에 이바지해야 하는데, 이런 질문들에 관해 성경이 별다른 단서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성서학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때로는 ‘거기까지만!’ 이라고 말하고 멈추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

1 모세가 구스 여자와 혼인한 이야기와 관련되는 또 다른 중요한 모티프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과 그에 대해 미리암만 벌을 받은 일이다. 이에 관한 한국학자의 최근 연구로 김민정, “궤야의 미리암(민 12:1-15) 재해석: ‘권력 강화’에 의한 ‘해방 전승’의 쇠퇴에 관한 논의”, 『구약논단』 25권 3호 (2019년 9월), 182-216을 참고하라.

그런데 옛 유대인들은 ‘거기’서 멈춘 것 같지 않다. 어쩌면 그들은 저 위에 붕 떠 있는 듯한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고 그것들에 답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랍비들의 미드라시뿐만이 아니다. 랍비 문학 이전의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성경의 여백들을 채우고자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이 모티프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대개 그 뼈대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의붓아들로서 왕궁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지낸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이집트의 남쪽 나라인 에티오피아로 원정을 가게 된다. 모세는 지혜와 용기로 갖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한다. 얼마 뒤 모세는 이집트로 귀환했으나, 왕과 백성의 시기를 받아 목숨을 잃을 위협에 처하고, 결국 광야로 달아나게 된다.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를 자세하게 일러 주는 최초의 저자는 기원전 3세기 말에 이집트에서 활동했다고 여겨지는 아르타파노스(Artapanus)이다.<sup>2</sup> 아르타파노스가 전해 준 이야기가 우리에게 직접 전해지지는 못했다. 아르타파노스가 적은 모세의 이야기를 알렉산드로스 폴리히스토르(Alexander Polyhistor)가 요약했고, 이것을 다시 카이사레아의 에우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가 「복음의 준비」(*Praeparatio evangelica*) 9.27.7-16에 베낀 것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르타파노스판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이다.<sup>3</sup> 모세

2 아르타파노스에 관해서는 John J. Collins, “Artapanus”, James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2 vols.; New York: Doubleday, 1983-1985), 2:889-896을 보라. 아르타파노스가 정확히 언제 활동했는지를 알기는 어려우나 몇 가지 증거를 고려할 때 그 시기가 기원전 250년에서 100년 사이였던 것은 거의 확실하다. 윗글, 2:890-891. 더 나아가 Collins는 그의 활동 시기가 기원전 3세기 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윗글, 2:890-891을 보라.

3 윗글, 2:889. 아래 논의에서 아르타파노스의 모세 이야기의 영문 번역으로 윗글, 2:898-903을 참고하였다. 아르타파노스의 모세 이야기의 원문은 Eusebius, Karl Mras and Édouard des Places (eds.), *Die*

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의 두 번째 형태는 요세푸스(Flavius Josephus, 기원후 37년 무렵~100년 이후)가 기원후 1세기 말에 쓴 것이다. 「유대 고대사」(*Antiquitates judaicae*) 2.238-257에서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의 또 다른 형태를 만날 수 있다.<sup>4</sup>

본 연구의 목적은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의 두 이야기, 곧 아르타파노스의 이야기와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비교·대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만들고 간직하고 발전시킨 이야기는 공동체를 표현하고 그 정체성을 규정해

---

*Praeparatio Evangelica, Teil 1: Einleitung, die Bücher I bis X* (2 vols.; GCS 8; Berlin: Akademie, 1982), 1:519-524; Wallace Nelson Stearns, *Fragments from Graeco-Jewish Writ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8), 46-56에서 볼 수 있다. 원문과 번역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료로는 Carl R. Holladay, *Fragments from Hellenistic Jewish Authors, Vol. 1: Historians* (SBLTT 20; Chico, CA: Scholars, 1983), 208-219를 보라. 알렉산드로스 폴리히스토르에 관해서는 John Strugnell, "Introduction: General Introduction, with a Note on Alexander Polyhistor",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2:777-779를 보라. 카이사레아의 에우세비우스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Mark J. Edwards, "Eusebius of Caesarea", Daniel Patte (ed.), *The Cambridge Dictionary of Christian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390-391을 보라.

4 요세푸스에 관해서는 Abraham Schalit, "Josephus Flavius", Fred Skolnik and Michael Berenbaum (eds.), *Encyclopaedia Judaica* (2nd ed.; 22 vols.;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11:435-442를 보라. 이하의 논의에서 요세푸스의 모세 이야기의 영문 번역으로는 Flavius Josephus, H. St. J. Thackeray (trans.), *Josephus, Vol. 4: Jewish Antiquities, Books I-IV* (LCL 242; London: Heinemann, 1930), 264-277을 참고하였다.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는 중세 유대인들의 전설들 속에서도 만날 수 있다. 거의 같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세 저작을 통해 전해진다. 「모세의 연대기」(*the Chronicle of Moses*), 「여라므엘의 연대기」(*the Chronicles of Jerahmeel*), 「야세르의 책」(*the Book of Jasher*)이 그것들인데, 세 저작의 정확한 연대를 알기는 어려우나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유래한 듯하다. 「모세의 연대기」의 영문 번역으로는 Oliver Shaw Rankin, *Jewish Religious Polemic of Early and Later Centuries: A Study of Documents Here Rendered in English*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56), 26-46을 보라. Rankin이 사용한 히브리어 대본은 Gilb Gaulmyn, *De Vita et Morte Mosis, Libri Tres* (Parisii, 1629)이다. 또 다른 히브리어 대본으로 Adolph Jellinek, *Bet ha-Midrash: Sammlung kleiner Midraschim und vermischter Abhandlungen aus der ältern jüdischen Literatur* (Leipzig: Friedrich Nies, 1853; repr. Jerusalem: Wahrman, 1938)가 있다. Gaulmyn의 책과 Jellinek의 책은 books.google.com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여라므엘의 연대기」의 영문 번역으로는 Moses Gaster, *The Chronicles of Jerahmeel ben Salomo* (London: Royal Asiatic Society, 1899)를 보라. 「야세르의 책」의 영문 번역으로는 Wayne Simpson, *The Authentic Annals of the Early Hebrews: Also Known as the Book of Jasher* (Kearney, NE: Morris, 1995), 70-76장을 보라. 아르타파노스, 요세푸스 및 중세 전설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서 Avigdor Shinan, "Moses and the Ethiopian Woman: Sources of a Story in *The Chronicles of Moses*", Joseph Heinemann and Shmuel Werses (eds.), *Studies in Hebrew Narrative Art throughout the Ages* (ScrHier 27; Jerusalem: Magnes, 1978), 66-78 및 Tessa Rajak, "Moses in Ethiopia: Legend and Literature", *JJS* 29 (1978), 111-122를 참고하라.

www.kci.go.kr

준다. 자신들의 위대한 스승 모세의 젊은 시절에 대해 유대인들이 만들고 간직하고 발전시킨 이야기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헬레니즘-로마 시대 유대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빚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작업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니다. 헬레니즘-로마 시대의 유대 공동체는 기독교와 그 경전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성서학도에게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sup>5</sup>

비교의 편의를 위해 뒤따르는 논의에서는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를 단락별로 나누어서 살필 것이다. 각 단락을 비교한 후에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의 아르타파노스판과 요세푸스판의 기원, 목적, 청중을 비교하며 논의할 것이다. 이로써 동일한 전승이 헬레니즘적 이집트와 에레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6</sup>

## 2. 아르타파노스와 요세푸스의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

### 2.1. 원정 이전

**아르타파노스.** 아르타파노스에 따르면 왕궁 시절의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었다.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리스인들은 그를 무사이오스(Mousaeus)라고 불렀다. 이 무사이오스는 오르페우스(Orpheus)의 스승이었다. 모세는 배를 발명했고, 석조 건축술 기구를 고안했고, 이집트의 무기, 물 길는 도구, 전

---

5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모티프나 아르타파노스를 다룬 한국어 연구는 없다. 요세푸스 저작의 해당 본문을 다룬 한국어 연구도 없는 듯하다.

6 당연한 말이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는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모티프는 실제 역사와는 무관하다. 성경도 이 전승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므로, 모세가 정말로 에티오피아로 원정을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성서학적으로도 따지기가 힘들다.

쟁 기구 및 철학을 만들어 냈다. 그는 나라를 36개의 노모스(nome)로 나누었고 각 노모스에 신들을 지정했다. 제사장들을 위한 성스러운 문자도 발명했다. 모세는 고양이와 개와 저어새(gibis)를 신격화했고, 제사장들에게 땅을 할당해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왕국을 굳건하게 만들고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헤르메스(Hermes)로도 불렸다(「복음의 준비」 9.27.3-6).

**요세푸스.** 에티오피아 원정 전의 모세에 대해 요세푸스가 전해 주는 일화는 하나뿐이다. 모세를 아들로 삼은 테르무티스(Thermuthis) 공주는 어린 모세를 왕 앞에 데려가서는 모세가 왕국을 이어받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말한다. 공주는 모세를 아버지의 팔에 안겼고, 왕은 모세를 받아 안은 후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었다. 그러나 모세는 왕관을 벗어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았다. “이 일은 왕국에 나쁜 의미를 지닌 징조로 생각”되었고, 이집트의 한 제사장은 아이를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테르무티스 공주는 아이를 얼른 낚아챘고 왕은 아이를 죽이는 일을 주저했다(「유대 고대사」 2.232-236).

**비교.** 두 이야기 모두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지만 아르타파노스의 이야기가 더 화려하다. 아르타파노스는 매우 압축적인 방식으로 모세를 이집트의 국가 영웅으로 그려 낸다. 모세는 이집트 문화와 군사 제도와 경제와 종교의 아버지로 제시된다. 학자들에 따르면 아르타파노스가 모세를 이런 식으로 묘사한 것은 많은 영웅 전설에 힘입은 바가 크다.<sup>7</sup> 콜린스(John J. Collins)가 관

---

7 Tessa Rajak, 윗글, 115; John J. Collins, “Reinventing Exodus: Exegesis and Legend in Hellenistic Egypt”,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Essays on the Jewish Encounter with Hellenism and Roman Rule* (Leiden: Brill, 2005), 49. Collins의 에세이는 2000년에 같은 제목으로 출간한 것을 재출간한 것이다. John J. Collins, “Reinventing Exodus: Exegesis and Legend in Hellenistic Egypt”, Randal A. Argall et al. (eds.), *For a Later Generation: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 in Israel, Early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52-62.

찰하듯, 모세의 업적에 대한 아르타파노스의 묘사에서, “세소스트리스(Sesostris)와의 유사성이 특히 두드러진다. 세소스트리스는 이집트 사람 최초로 나라를 노모스로 나누었으며 이집트 종교를 조직화했다는 칭송을 받았다. 아르타파노스는 이런 업적들을 이룩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하는 것이다.”<sup>8</sup> 더 나아가 “모세는 이방 신들을 뛰어넘기까지 한다. 그는 최상의 문명 전달자인 헤르메스와 동일시되고, 땅과 동일시되는 이시스(Isis)보다 우월하다. 그는 또한 오르페우스의 스승이다.”<sup>9</sup> 일반적으로는 오르페우스가 무사이오스의 스승으로 회자되지만 아르타파노스는 그 관계를 뒤집었는데, 이로써 모세의 위상은 더 높아진다.<sup>10</sup>

아르타파노스는 이집트인 역사가 마네토(Manetho)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고도 알려져 있다.<sup>11</sup> 마네토는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어로 저술 활동을 했는데,<sup>12</sup> 그의 단편(斷片)들이 요세푸스를 통해 오늘까지 전해진다(에켄대, 「아피온을 반박함」[*Contra Apionem*] 1.228-252).<sup>13</sup> 마네토에 따르면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

8 John J. Collins, “Reinventing Exodus”, 49. 또한 Tessa Rajak, *위글*, 115를 보라.

9 John J. Collins, “Reinventing Exodus”, 49. 또한 다음을 참고하라. John J. Collins, *Between Athens and Jerusalem: Jewish Identity in the Hellenistic Diaspora*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0), 40-41; John M. G. Barclay, “Manipulating Moses: Exodus 2,10-15 in Egyptian Judaism and the New Testament”, Robert P. Carroll (ed.), *Text as Pretext: Essays in Honour of Robert Davidson* (JSOTSup 13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2), 32-34.

10 John J. Collins, “Artapanus”, 2:898 n.

11 John J. Collins, “Reinventing Exodus”, 48; John J. Collins, *Between Athens and Jerusalem*, 40; Carl R. Holladay, *Theios Aner in Hellenistic Judaism: A Critique of the Use of This Category in New Testament Christology* (SBLDS 40;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7), 213-214.

12 Menahem Stern, “Manetho”, *Encyclopaedia Judaica* (2nd ed.; 22 vols.;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13:467. 일부 학자들은 마네토가 고대의 반유대주의가 출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Menahem Stern, *위글*, 13:467. 그러나 Collins는 마네토가 일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반유대주의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John J. Collins, “Reinventing Exodus”, 50-51. 마네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John G. Gager, *Moses in Greco-Roman Paganism* (SBLMS 16; Nashville: Abingdon, 1972), 113-118을 참고하라.

13 Flavius Josephus, H. St. J. Thackeray (trans.), *Josephus, Vol. 1: The Life, Against Apion* (LCL 186; London: Heinemann, 1926).

게 신들을 예배하지 말고 거룩한 동물들의 고기를 삼가지도 말라고 명령했으나(「아피온을 반박함」 1.239), 아르타파노스는 모세야말로 오히려 이런 제의를 확립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sup>14</sup> 그렇다면 아르타파노스의 목적은 명확하다. 그는 지금 논쟁을 하는 것이다. 당대의 전설들과 이야기들 중에는 이집트 및 그리스 사람들의 자존감을 고취하는 동시에 유대인들을 폄하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르타파노스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과 대화하고 씨름하며 그 주장들을 반박하는 것이다.<sup>15</sup> 이렇게 모세를 에티오피아 원정 이전부터 이집트 문명의 영웅으로 제시함으로써 아르타파노스는 동족의 자존감을 높이고 반유대적 주장들을 수정하고 싶어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아르타파노스는 성경 및 다른 자료들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그는 “토라를 범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sup>16</sup>

요세푸스가 일러 주는 모세의 왕궁 시절 사건은 어린 모세의 징조 하나뿐이다. 이는 훗날 사건을 위한 복선인데, 이 사건으로 모세가 이집트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목숨의 위협을 받아 이집트를 떠나기 때문이다.<sup>17</sup> 모세의 이집트 시절 업적에 대해서도 요세푸스는 말해 주는 바가 없다. 요컨대, 요세푸스의 모세의 젊은 시절 이야기는 아르타파노스의 이야기만큼 창의적이지도 자유롭지도 않으며 그만큼 덜 논쟁적이다. 확실히 요세푸스는 아르타파노스와 달리 “토라를 범하는 데에 거리낌”이 있었던 듯하다.

---

14 John J. Collins, “Reinventing Exodus”, 48; John J. Collins, *Between Athens and Jerusalem*, 40.

15 John J. Collins, “Artapanus”, 2:891-892를 보라.

16 John J. Collins, “Reinventing Exodus”, 47.

17 아래를 보라.

## 2.2. 원정의 계기

**아르타파노스.** 아르타파노스는 이집트의 왕 케네프레스(Chenephres)가 모세의 탁월함을 시기했다고 말한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집트에 싸움을 걸어오자 케네프레스 왕은 그에 맞서 모세를 보냈는데 병사들을 농부들로 구성해 주었다. 훈련받지 못한 군인들과 함께 모세가 쉬이 죽임당할 것을 왕이 기대한 것이다(「복음의 준비」 9.27.7).

**요세푸스.** 요세푸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 준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먼저 이집트를 침략했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집트 사람들이 전쟁을 벌인다. 그러나 이집트는 크게 패한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멤피스와 바다에 이르기까지 전진했고, 그 어떤 도시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신탁을 받는다. 히브리 사람들을 동맹으로 삼으라는 신탁이었다. 이집트의 왕은 딸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모세는 어머니와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 사람들의 사령관이 된다. 이에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적들의 패배와 더불어 모세의 죽음을 기대하면서 기뻐한다.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탈출할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기뻐한다(「유대 고대사」 2.238-43).

**비교.** 모세가 에티오피아 원정을 가게 된 계기에 관하여 아르타파노스와 요세푸스의 이야기는 꽤 비슷한 듯하나, 세부 내용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아르타파노스에 따르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간에 전쟁이 있기 전에 이집트 왕이 모세를 죽이고 싶어 했다. 반면 요세푸스는 모세를 죽이고 싶어 한 사람들이 이집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었다고 말한다. 아르타파노스에서 대중은 모세를 사랑한 반면 왕은 모세를 시기했다(「복음의 준비」 9.27.7). 요세푸스에서 이집트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모세가 어린 시절 보여 준 징조 때문에 모세를 죽이고 싶어 했으나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죽

이지는 않았다(『유대 고대사』 2.237).<sup>18</sup>

두 이야기에서 모두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에 모세가 지휘관으로 임명된다. 이때 요세푸스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기대가 있었다고 말한다. 적군의 패배와 모세의 죽음이었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이다.<sup>19</sup> 반면 아르타파노스에서 이집트 왕 케네프레스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물리치는 데에 관심이 없다. 왕의 유일한 목적은 모세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군대를 농부로 구성해 준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점 때문에, 모세가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세의 지혜와 용기가 더 빛이 난다. 작은 차이지만 이렇게 케네프레스 왕의 교활한 음모와 모세의 뜻밖의 성공을 대조함으로써, 모세의 위대함은 요세푸스에서보다 아르타파노스에서 더 강조된다. 요컨대 이야기의 이 지점에서 아르타파노스는 요세푸스보다 더 논쟁적이다.

### 2.3. 전쟁, 저어새, 혼인

**아르타파노스.** 아르타파노스가 일러 주는 바에 따르면, 모세는 약 10만의 병사를 데리고서 헤르모폴리스(Hermopolis)에 다다라 진을 쳤고 그 지역을 포위하기 위해 장군들을 보냈다. 이 포위로 전세가 매우 유리해졌고, 전쟁은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모세의 사람들은 병력의 규모 때문에 도시를 세웠고 그곳에서 저어새(ibis)를 성별했는데 저어새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을 죽였기 때문이다. 모세의 사람들은 그 도시를 헤르모폴리스(‘헤르메스의 도시’)라고 이름 붙였다. 아르타파노스는 에티오피아 사람들

---

18 Thackeray에 따르면 이 내용을 말해 주는 본문이 망가져 있어서 그 뜻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다른 왕위 계승자가 없었다는 이해는 Thackeray를 따른 것이다. Flavius Josephus, H. St. J. Thackeray (trans.), *Josephus 4*, 268-269 n.을 보라.

19 Tessa Rajak, *윇글*, 114.

이 모세를 사랑하여 모세에게 할례를 배웠다는 말도 덧붙인다(「복음의 준비」 9.27.8-10).

**요세푸스.**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경로를 선택하여 행군한다. 강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륙을 통과하는 길이었다. 그 길에는 날개 달린 뱀을 비롯하여 온갖 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뱀들의 천적인 저어새를 가득 담은 바구니를 준비하여 뱀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 모세는 대승을 거두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모두 사바(Saba)로 쫓겨 가서 그곳에서 다시 포위된다. 사바성은 나일강과 다른 강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격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양쪽 군대는 움직이지 않았고, 모세는 자신의 군대가 움직이지 않자 짜증이 났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왕의 딸 타르비스(Tharbis)가 모세의 용맹과 지혜를 보고 모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타르비스 공주는 모세에게 혼인을 제안했고, 모세는 공주가 도시를 포기한다는 조건하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모세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징벌한 후 공주와 혼인했고 그 후 이집트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유대 고대사」 2.244-253).

**비교.** 두 이야기에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성을 포위했고, 포위 기간이 길었으며, 저어새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두 이야기가 전쟁 과정을 다룬 방식은 많이 다르다. 아르타파노스는 전쟁의 진행 과정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포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혜로운 모세가 저어새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세가 에티오피아 공주와 혼인했는지 안 했는지 말해 주지 않는다. 아르타파노스가 관심을 쏟는 것은 원인론들이다. 아르타파노스는 저어새가 신격화된 사연, ‘헤르모폴리스’라는 이름이 붙은 연유, 할례가 에티오피아에 전해진 사연 등을 일러 준다.

부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에 아르타파노스가 집중한 것

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아르타파노스의 이야기가 생략을 많이 한 이유는 당대에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전승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아르타파노스가 세부 내용을 자세히 말하는 것이 불필요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르타파노스가 “모세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저어새를 성별했는데 저어새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을 죽였기 때문이었다”(『복음의 준비』 9.27.9)라고 말한 것은 이 새가 전쟁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음을 전제한다.<sup>20</sup> 모세의 혼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 또한 당대 사람들이 모세가 에티오피아에서 혼인을 했다는 전승을 잘 알았기 때문일 수 있다.<sup>21</sup> 만약 이 추측이 옳다면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전승은 아르타파노스의 창작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당대에 회자하던 전승을 아르타파노스가 자신의 작품 속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원인론을 제공함으로써 아르타파노스는 모세를 영향력 있는 창조자로 그려 낸다. 즉, 이 부분에서도 역시 아르타파노스는 모세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한 번, 아르타파노스는 변증적이고 논쟁적이다.

요세푸스의 전쟁 이야기는 보다 자세하여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쟁의 첫 번째 국면에서 모세는 뱀이 우글거리는 지역을 저어새를 활용하여 통과한다. 확실히 이 부분은 모세의 과감함과 총명함을 강조한다. 반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사바성으로 피신한 후인 전쟁의 두 번째 국면에서 모세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한다. 전쟁이 종식되긴 하지만 모세가 무얼 해서 그

20 물론 알렉산드로스 폴리히스토르가 아르타파노스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아르타파노스의 본래 이야기를 축약했을 가능성도 있다. Jacob Freudenthal, *Alexander Polyhistor und die von ihm erhaltenen reste jüdäischer und samaritanischer geschichtswerke* (Breslau: H. Skutsch, 1875), 160 n.을 참고하라.

21 이런 내용들이 빠진 것이 아르타파노스의 의도와 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전승과 본문의 전달 과정에서 내용들이 소실됐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깊고 포괄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 다루기는 힘들다.

리된 것은 아니었다. 에티오피아의 공주가 모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수 있었다.<sup>22</sup>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 요세푸스의 모세는 확실히 아르타파노스의 모세보다 약하고 부족하다.

#### 2.4. 살인

**아르타파노스.** 아르타파노스가 전해 주는 모세의 살인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와 매우 다르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집트 왕 케네프레스는 모세를 말로는 환대했으나 실제로는 해칠 음모를 꾸몄다. 왕의 부인이자 모세의 의붓어머니인 메리스(Merris)가 죽자, 케네프레스 왕은 모세와 카네토테스(Chanethotes)에게 메리스의 시신을 매장하는 일을 맡긴다. 왕은 이미 카네토테스에게 모세를 죽이라고 말해 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모세의 형 아론이 이 계획에 대해 알게 되고 모세에게 아라비아로 도망가라고 조언한다. 모세는 형의 조언을 따르지만, 이번에는 카네토테스가 모세가 피신하는 것을 알게 되어 그를 숨어서 기다리다가 죽이려 했다. 모세는 공격을 막은 후 카네토테스를 찌르고서 아라비아로 도망간다. 아라비아에서 그곳의 통치자 라구엘(Raguel)과 같이 살게 되고 그의 딸과 혼인한다. 라구엘은 모세의 자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이집트와 전쟁을 하려고 했으나 모세는 이를 저지한다. 대신 라구엘은 아랍 사람들에게 이집트를 약탈하되 전면전은 피하라고 명령한다(「복음의 준비」 9.27.11-19).

**요세푸스.** 요세푸스는 모세의 살인 사건을 완전히 생략한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에게 중요성을 폄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전쟁에서의 성공을 토대로 혁명을 일으킬

---

22 에티오피아 공주가 사랑에 빠진 부분은 헬레니즘적 문학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Tessa Rajak, 윗글, 117.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은 왕에게 모세를 죽이라고 제안한다. 모세의 지휘력을 시기한 이집트 왕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기꺼이 모세를 죽이고자 한다. 그러나 때맞춰 모세가 이를 알게 되고 비밀리에 도망가 마디안(Madian)에 다다른다(「유대 고대사」 2.254-258).

**비교.** 모세의 살인 동기를 제시할 때, 아르타파노스 이야기의 논쟁적 성격이 다시 한 번 두드러진다. 아르타파노스에 따르면 모세는 카네토테스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 처음에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는 아라비아로 도망가서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고, 나중에 자신이 공격당했을 때에야 카네토테스를 찔렀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살인은 정당방위로 이해될 수 있다.<sup>23</sup>

요세푸스는 모세의 살인 이야기를 아예 쓰지 않았다. 보통은 성경을 충실히 따르는 요세푸스가 이 사건을 생략한 것은 물론 의도적이었을 것이고, 그 목적은 아르타파노스의 목적과 비슷했을 것이다.

아르타파노스는 모세가 라구엘을 설득하여 이집트를 침략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준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모세가 이집트를 침략했다는 마네토의 주장(「아피온을 반박함」 1.241)을 반박한 것이다.<sup>24</sup> 이것 역시 아르타파노스가 당대의 반유대적 전승들과 논쟁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23 John J. Collins, "Artapanus", 2:900.

24 John J. Collins, *Between Athens and Jerusalem*, 40.

### 3. 두 이야기의 기원, 목적, 청중

위의 비교를 종합하여 여기서는 아르타파노스의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와 요세푸스의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 각각의 기원, 목적, 청중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 아르타파노스 이야기의 기원, 목적, 청중

아르타파노스의 모세 이야기는 이집트에서 기원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모세 이야기의 거의 전체가 이집트와 관련된다.<sup>25</sup> 더욱이, 앞에서 보았듯 모세의 위대함을 묘사하는 내용도 이집트 전설과 신화에서 모티프를 많이 빌려 왔다.<sup>26</sup> 다만 이집트의 정확히 어디서 아르타파노스의 이야기가 유래했는지 알기는 어렵다. 몇몇 학자들은 아르타파노스의 이야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했다고 말하지만,<sup>27</sup> 다른 학자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아르타파노스의 이야기는 다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들의 문학과는 많이 다르므로 그곳에서 지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sup>28</sup>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은 아르타파노스의 이야기의 상황, 즉 최종 저작의 상황이었다. 그것 말고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전승 자체의 기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르타파노스가 자신의 저작에 집어

25 John J. Collins, "Artapanus", 2:891.

26 Avigdor Shinan, *유태교*, 68-69.

27 예컨대, Harold W. Attridge, "Historiography", Michael E. Stone (ed.), *Jewish Writing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Apocrypha, Pseudepigrapha, Qumran Sectarian Writings, Philo, Josephus* (CRINT; Assen: Van Gorcum, 1984), 168. 또한 Tessa Rajak, *유태교*, 114-115를 참고하라.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의 사회적 상황을 칠십인역과 관련하여 다룬 최근 연구로서 Un Sung Kwak,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Translator [sic] of Chronicles", 「구약논단」 26권 1호 (2020년 3월), 174-197을 보라.

28 간략한 논의로서 John J. Collins, *Between Athens and Jerusalem*, 39 n.; Erkki Koskenniemi, "Greeks, Egyptians and Jews in the Fragments of Artapanus", *JSP* 13 (2002), 23을 보라.

넣은 원 자료는 어디서 기원했을까?<sup>29</sup> 레이잭(Tessa Rajak)에 따르면, 이 모티프 또한 이집트에서 기원하였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가 에티오피아와의 관계이기 때문”이며, “에티오피아야말로 국경의 영원한 적으로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sup>30</sup>

아르타파노스의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콜린스는 아르타파노스의 단편(斷片)들을 역사 소설(historical romance)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헬레니즘적 유대교의 변증적 문학(apologetic literature)의 한 변이형” 혹은 “헬레니즘 시대의 ‘경쟁적 역사 기록(competitive historiography)’”이었다고 말한다.<sup>31</sup> 그리하여 아르타파노스의 문학은 이중적 목적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마네토 같은 비유대인 저자들의 반유대적(혹은 반유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주장들을 반박하고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우월성을 칭송하고자 했다는 것이다.<sup>32</sup> 이런 이유로 아르타파노스는 신명기적 신학을 포기하면서 모세를 율법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국가적 영웅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sup>33</sup> 아르타파노스는 지금 논쟁의 한 가운데에 있기에, 그가 그리는 모세의 모습은 “성경 이야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경쟁적 역사 기록—그 목적을 위해 (여러 자료들 중에서도 특히) 성경

---

29 Thackeray는 요세푸스가 전하는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에 대해, 이 전설이 “아르타파노스에게서 직접 왔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Flavius Josephus, H. St. J. Thackeray (trans.), *Josephus 4*, 269 n.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모티프가 아르타파노스의 창작물인지, 아니면 아르타파노스 이전에 원 자료가 있어서 아르타파노스와 요세푸스가 공히 그 자료를 활용한 것인지에 관한 간략한 논의로서 Tessa Rajak, *윗글*, 119-120을 참고하라.

30 Tessa Rajak, *윗글*, 114-115.

31 John J. Collins, “Artapanus”, 2:891-92.

32 *윗글*, 2:892; John J. Collins, *Between Athens and Jerusalem*, 44; John J. Collins, “Reinventing Exodus”, 49; Harold W. Attridge, *윗글*, 168.

33 John J. Collins, *Between Athens and Jerusalem*, 42-43. Silver는 군대 사령관으로서의 모세를 묘사한 내용이 헬레니즘적 영웅 이야기의 표준적 요건에서 왔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Daniel J. Silver, “Moses and the Hungry Birds”, *JQR* 64 (1973), 131.

의 자료에 의존하는—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sup>34</sup> 앞에서 보았듯, 아르타파노스는 요세푸스와 달리 모세가 혼인한 사건과 저어새를 활용한 사건을 생략했고 전쟁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다. 이 역시 아르타파노스의 목적이 변증 혹은 논쟁이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모세의 모험을 세심하게 묘사하는 일은 아르타파노스의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 아르타파노스가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 내용은 모세의 위대함을 보여 주는 일화들이다. 그러므로, 비록 아르타파노스가 ‘이야기’를 말해 주고 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야기 전달이 아니라 목적의식이다. 요컨대, 아르타파노스의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는 변증이자 논쟁이다.

마지막으로 아르타파노스의 청중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살펴본 아르타파노스의 이중적 목적—반유대적 주장에 대한 반박, 민족적 자존감의 고취—과 더불어 몇 가지 사항을 더 고려해야 한다. 아르타파노스는 그리스어로 글을 썼고 그리스 문화(예컨대, 무사이오스, 오르페우스, 헤르메스)를 잘 알았다. 그는 성서의 자료를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사용했다. 아르타파노스는 이방 종교를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았다(모세는 이방 종교의 몇몇 관습을 창시하기까지 했다).<sup>35</sup>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아르타파노스가 마음에 둔 청중은 두 그룹이었을 것이다. 하나는 성서와 그리스 문화를 잘 아는 그리스어 사용자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sup>36</sup> 그리고 아르타파노스에게 후자는 전자 못지않게 중요했다.

## 2) 요세푸스 이야기의 기원, 목적, 청중

요세푸스의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가 기원한 배경으로서 두 가

34 John J. Collins, *Between Athens and Jerusalem*, 44.

35 Harold W. Attridge, *읽기*, 167.

36 John J. Collins, “Artapanus”, 2:892를 보라.

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헬레니즘적 이집트이고, 다른 하나는 에레츠 이스라엘이다.

우선, 몇몇 특징은 이 이야기가 이집트 및 헬레니즘-로마 문화권에서 기원했음을 암시하는데, 그렇다면 요세푸스의 이야기는 그 기원에 있어 아르타파노스와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다.<sup>37</sup> 예컨대, 아르타파노스의 경우에서 보았듯, 요세푸스가 승리자 모세를 그린 모습은 이집트 전설과 민담에서 빌려온 것이다.<sup>38</sup> 모세의 원정의 ‘존재 이유’인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관계<sup>39</sup> 또한 이 이야기가 이집트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더불어, 헬레니즘적 영향도 볼 수 있다. 모세와 에티오피아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가 대표적이다.<sup>40</sup>

그러나 몇몇 특징은 다른 방향, 곧 유대적 배경을 가리킨다. 첫째, 시난(Avigdor Shinan)이 관찰하듯, 아르타파노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이교적 배경 및 원인론적 관심을 요세푸스에서는 볼 수 없다.<sup>41</sup> 반면, 아르타파노스에서 볼 수 없던 성서적 모티프들이 요세푸스에서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중요하게 다뤄져서, 히브리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간의 중추가 강조된다.<sup>42</sup> 그리하여, 모세를 시기한 사람이 왕 혼자였다고 말한 아르타파노스와 달리, 요세푸스는 이집트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싶어 했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다. 아르타파노스가 언급하지 않

---

37 Runnalls는 문체와 어휘 같은 언어적 특징에 근거하여 아르타파노스와 요세푸스 간에 직접적인 의 존이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그러나 Runnalls가 계속해서 말하듯, 내용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두 이야기가 공통 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Donna Runnalls, “Moses’ Ethiopian Campaign”, *JSJ* 14 (1983), 139-147. Runnalls의 연구는 아르타파노스가 표현한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전승을 요세푸스가 어떻게 수용하고 수정했는지를 주로 살핀다.

38 Tessa Rajak, *윳글*, 114를 참고하라.

39 윳글, 115.

40 윳글, 117.

41 Avigdor Shinan, *윳글*, 70.

42 윳글, 70.

은 모세의 혼인도 요세푸스의 내러티브 전개에서는 중요하다. 또한, 레이잭이 적절히 지적하듯, 이집트 왕에 대한 모세의 처지가 든든하지 못한 점 또한 성경의 전승과 닮았다. 아르타파노스의 모세와 달리 요세푸스의 모세는 약점을 드러낸다. 예컨대, 모세는 포위 공격 중 “그의 군대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짜증”이 났고(『유대 고대사』 2.251), 에티오피아 공주가 혼인하자고 제안하기 전까지는 승리를 얻어 내지 못했다.<sup>43</sup>

이같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종류의 특징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헬레니즘적 자료가 하나 있었고(이것이 발전한 대표적인 형태가 아르타파노스판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일 것이다), 그것을 요세푸스가 활용하고 조정하였다. 요세푸스 자신도 두 문화를 다 경험했다. 그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다.<sup>44</sup> 요세푸스는 그리스어로 글을 썼고, 동시에 랍비적 유대교를 위한 가교가 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세푸스가 헬레니즘적 자료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시 쓰되 일부는 보존하고 일부는 수정함으로써 그리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요세푸스가 자신의 역사책에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를 집어넣은 목적은 무엇일까?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 같은 역사책을 저술한 제일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역사 혹은 이야기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보았듯, 변증 혹은 논쟁을 최우선으로 삼은 아르타파노스와 달리 요세푸스는 이야기의 세부 내용에 관심이 많다. 예컨대, 모세가 저어새를 지혜롭게 활용한 것, 전쟁이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 타르비스 공주와의 사랑을

---

43 Tessa Rajak, 윗글, 114를 보라.

44 Avigdor Shinan, 윗글, 70.

통해 전쟁이 마무리된 것 등을 요세푸스는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 준다. 이런 세부 내용들은 이야기를 보다 그럴 듯하게 만들어 준다. 즉, 요세푸스의 역사 이야기가 보다 설득력 있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이야기는 아르타파노스만큼은 아니더라도 변증 혹은 논쟁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요세푸스는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완전히 생략하는데, 이것은 아르타파노스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모세는 여전히 위대한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세푸스의 제일의 관심은 변증이 아닌 역사 서술이었고, 이것이 요세푸스와 아르타파노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요세푸스의 청중에 대해서는 아르타파노스에 대해 말한 것과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르타파노스가 그랬듯 요세푸스도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및 비유대인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억해 볼 때 요세푸스가 보다 집중한 쪽은 비유대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청중에 있어서도 아르타파노스와 요세푸스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

#### 4. 결론

지금까지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을 다룬 헬레니즘-로마 시대의 두 이야기, 곧 아르타파노스의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와 요세푸스의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를 비교하였다. 먼저, 내러티브의 진행에 따라 단락을 나누어 각 단락의 내용을 살피고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따졌다. 그 다음에는 아르타파노스의 이야기와 요세푸스 이야기 각각의 기원, 목적, 청중에 대해서 생각했다. 아르타파노스의 모세의 에티오피아 원정 이야기는 헬레니즘적 이집트에서 기원한 “변증적 문학” 혹은 “경쟁적 역사 기록”이

다.<sup>45</sup> 변증과 논쟁이 제일의 목적이었으므로, 아르타파노스는 성경 및 다른 자료들을 자유롭게 사용한다. 그는 모세를 이집트의 국가적 영웅이자 문명의 창시자로 그려냄으로써 비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고 유대인들의 자존감을 고취하고자 했다. 요세푸스의 이야기는 아르타파노스의 이야기만큼 논쟁적이지 않다. 요세푸스는 성경 이야기를 각색하는 데에도 아르타파노스만큼 자유롭지 못했다. 요세푸스의 주된 목적이 역사의 기록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세푸스의 초점은 비유대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듯하다.

우리가 살핀 것은 헬레니즘-로마 시대 유대 전설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전해 준 두 저작이었다. 작은 부분을 들여다보았을 뿐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시대와 사회와 사람들을 일견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과 성서의 모체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눈길이 미치지 못한 저자들과 저작물이 아직 많이 있다. 이 연구가 그것들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 5. 참고문헌

김민정, “광야의 미리암(민 12:1-15) 재해석: ‘권력 강화’에 의한 ‘해방 전승’의 쇠퇴에 관한 논의”, 『구약논단』 25권 3호 (2019년 9월), 182-216.

Attridge, Harold W., “Historiography”, Michael E. Stone (ed.), *Jewish Writings of the Second Temple Period: Apocrypha, Pseudepigrapha, Qumran Sectarian Writings, Philo, Josephus* (Compendia Rerum Iudaicarum ad Novum Testamentum; Assen: Van Gorcum, 1984), 157-184.

Barclay, John M. G., “Manipulating Moses: Exodus 2,10-15 in Egyptian Judaism and the New Testament”, Robert P. Carroll (ed.), *Text as Pretext: Essays in*

---

45 John J. Collins, “Artapanus”, 2:891-92.

- Honour of Robert Davids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13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2), 28-46.
- Collins, John J., "Artapanus", James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2 vols.; New York: Doubleday, 1983-1985), 2:889-903.
- Collins, John J., *Between Athens and Jerusalem: Jewish Identity in the Hellenistic Diaspora*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0).
- Collins, John J., "Reinventing Exodus: Exegesis and Legend in Hellenistic Egypt", Randal A. Argall, Beverly A. Bow, and Rodney A. Werline (eds.), *For a Later Generation: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 in Israel, Early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Harrisburg,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0), 52-62.
- Collins, John J., "Reinventing Exodus: Exegesis and Legend in Hellenistic Egypt", *Jewish Cult and Hellenistic Culture: Essays on the Jewish Encounter with Hellenism and Roman Rule* (Leiden: Brill, 2005), 44-57.
- Edwards, Mark J., "Eusebius of Caesarea", Daniel Patte (ed.), *The Cambridge Dictionary of Christian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390-391.
- Eusebius, Karl Mras and Édouard des Places (eds.), *Die Praeparatio Evangelica, Teil 1: Einleitung, die Bücher I bis X* (2 vols.; Die griechische christliche Schriftsteller der ersten Jahrhunderte 8; Berlin: Akademie, 1982).
- Freudenthal, Jacob, *Alexander Polyhistor und die von ihm erhaltenen reste jüdischer und samaritanischer geschichtswerke* (Breslau: H. Skutsch, 1875).
- Gager, John G., *Moses in Greco-Roman Paganism*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Monograph Series 16; Nashville: Abingdon, 1972).
- Gaster, Moses, *The Chronicles of Jerahmeel ben Salomo* (London: Royal Asiatic Society, 1899).
- Gaulmyn, Gilb, *De Vita et Morte Mosis, Libri Tres* (Parisiis, 1629).
- Holladay, Carl R., *Fragments from Hellenistic Jewish Authors, Vol. 1: Historian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Texts and Translations 20; Chico, CA: Scholars Press, 1983).
- Holladay, Carl R., *Theios Aner in Hellenistic Judaism: A Critique of the Use of This*

- Category in New Testament Christology*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40;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7).
- Jellinek, Adolph, *Bet ha-Midrash: Sammlung kleiner Midraschim und vermischter Abhandlungen aus der ältern jüdischen Literatur* (Leipzig: Friedrich Nies, 1853; repr. Jerusalem: Wahrmann, 1938).
- Josephus, Flavius, H. St. J. Thackeray (trans.), *Josephus, Vol. 1: The Life, Against Apion* (Loeb Classical Library 186; London: Heinemann, 1926).
- Josephus, Flavius, H. St. J. Thackeray (trans.), *Josephus, Vol. 4: Jewish Antiquities, Books I-IV* (Loeb Classical Library 242; London: Heinemann, 1930).
- Koskenniemi, Erkki, "Greeks, Egyptians and Jews in the Fragments of Artapanu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13 (2002), 17-31.
- Kwak, Un Sung,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Translator [sic] of Chronicles", 「구약 논문단」 26권 1호 (2020년 3월), 174-197.
- Rajak, Tessa. "Moses in Ethiopia: Legend and Literature", *Journal of Jewish Studies* 29 (1978), 111-122.
- Rankin, Oliver Shaw, *Jewish Religious Polemic of Early and Later Centuries: A Study of Documents Here Rendered in English*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56).
- Runnalls, Donna, "Moses' Ethiopian Campaign",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s* 14 (1983), 135-156.
- Schalit, Abraham, "Josephus Flavius", Fred Skolnik and Michael Berenbaum (eds.), *Encyclopaedia Judaica* (2nd ed.; 22 vols.;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11:435-442.
- Shinan, Avigdor, "Moses and the Ethiopian Woman: Sources of a Story in *The Chronicles of Moses*", Joseph Heinemann and Shmuel Werses (eds.), *Studies in Hebrew Narrative Art throughout the Ages* (Scripta Hierosolymitana 27; Jerusalem: Magnes, 1978), 66-78.
- Silver, Daniel J., "Moses and the Hungry Birds", *Jewish Quarterly Review* 64 (1973),

123-153.

Simpson, Wayne, *The Authentic Annals of the Early Hebrews: Also Known as the Book of Jasher* (Kearney, NE: Morris, 1995).

Stearns, Wallace Nelson, *Fragments from Graeco-Jewish Writ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08).

Stern, Menahem, “Manetho”, Fred Skolnik and Michael Berenbaum (eds.), *Encyclopaedia Judaica* (2nd ed.; 22 vols.;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7), 13:467.

Strugnell, John, “Introduction: General Introduction, with a Note on Alexander Polyhistor”, James H. Charlesworth (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2 vols.; New York: Doubleday, 1983-1985), 2:777-779.

검색어

헬레니즘

이집트

역사 기록

변증

마네토

## Moses's Ethiopian Campaign: A Comparative Reading of Artapanus and Josephus

Dong-Hyuk Kim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compares and contrasts two Hellenistic versions of the story of Moses's Ethiopian campaign, the version of Artapanus (*Praep. ev.* 9.27.7-16) and that of Josephus (*A.J.* 2.238-257), so that it may investigate how the same motif was expressed differently in Hellenistic Egypt and in Eretz Israel and what roles each version played in its own setting.

The study makes comparisons of each of the stages of the two stories. Then, it synthesizes the results and discusses the origin, purpose, and audience of Artapanus's and Josephus's versions of the story of Moses's campaign against Ethiopia.

Artapanus's story is a "competitive historiography" originating from Hel-

www.kci.go.kr

lenistic Egypt. Since he wants his writing to be apologetic and polemic, Artapanus uses biblical and other sources freely. He portrays Moses as a national hero of Egypt and a founder of its culture so that he may correct contemporary anti-Jewish sentiments among non-Jews and enhance the self-esteem of Jews. Josephus's story is not as polemic as Artapanus's. He is not as free as Artapanus in adapting biblical sources, probably because his main purpose was to write a history as accurately as possible. Although Josephus must have wanted his writing to reach non-Jews, his attention seems to have been directed more toward Jews than non-Jews.

This study helps take an in-depth look at the time, society, and people of each of the matrices where the same motif about a Jewish hero was made, developed, and circulated.

## Keywords

Hellenism

Egypt

Historiography

Apologetic

Manetho

- 투고일: 2021년 1월 17일
- 심사일: 2021년 2월 8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2월 9일

[www.kci.go.kr](http://www.kci.go.kr)